로컬뉴스

정읍 시기동주민자치위원회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

시기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9일 칠월칠석을 맞아 어르신들을 초청,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주민자치위원회는 16개 통별로 홀로 사는 노인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 80명을 선정해 샘고을시장 내 맛나 한우 장터골식당에서 삼계탕을 정성껏 준비, 대접하고 담소를 나누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송준상 위원장은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자녀들과 떨어져 홀로 살고 계시다."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는 한편 어르신들이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기 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자치위원회는 매년 여름이면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해 왔다.

또 최근에는 정읍인구 15만 회복 운동과 쓰레기 불법투기 합동 단속에 적극 나서는 등 등 쾌적한 환경조성과 발전하는 지역 만들기에 앞장서오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는 중국인 대규모 관광객의 지평선축제 방문을 통해 최근의 한류 열풍을 반영한 '대규모 이슈메이킹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총력

김제시, 지평선축제 기간 중 단체관광객 방문 위한 협약식 체결

김제시(시장 이건식)가 대한민국 최초 4년 연속 대표축제인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의 글로벌축제로의 진입을 앞두고 체류형 해외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섰다.

김제시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이건식 김제시장, 김황중 문화홍보축제실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중국 하남성 정주시, 개봉시를 방문하여 중국인 기업 단체관광객 유치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관광객 초청 메시지를 전달하고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 기간 중 단체관광객 방문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중국 정주시(시장 마의)는 중국 하남성의 성도(省都)로서 황하강 중류에 위치한 철도·도로 교통의 요충지로 용문석굴 등 역사문화유적이 많고 중국전통무술의 요람인 소림사가 소재한 인구 903만명, 7,446㎢ 면적의 준광역도시이며, 중국 개봉시(시장 후홍)는 황하강 남쪽의 대평원에 위치한 인구 510만명, 6,444㎢ 면적의 중국 7대 고도(古都) 중 하나이다.

김제시는 중국인 대규모 관광객의 지평선축제 방문을 통해 최근의 한류 열풍을 반영한 '대규모 이슈메이킹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으로 한?중간 상생의 대규모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어 대한민국 대표축제다운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각오다.

또한 이번 중국인 대규모 관광객 방문으로 외국인에게 축제한류 체험의 기회 제공과 함께 중앙 및 세계 언론에 이슈화 됨은 물론 새만금권역을 중심으로 한 1박 2일의 일정으로 전북 도내 체류 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여 그로 인한 파급효과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대한민국 고유의 전통농경문화를 담은 김제지평선축제가 그간의 노하우와 콘텐츠 개발로 전세계인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새만금권역을 비롯한 우리 지역 체류를 통한 새로운 관광 수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김제지평선축제가 앞장서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광복절 기념 태극기 달아주기 활동 전개

김제시 재향군인회

김제시 재향군인회(회장 박영봉)는 제71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8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구산로터리를 중심으로 "범시민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을 확산·전개시키고 애국심을 고양하기 위해 태극기 달아주기 및 태극기 무료로 나눠주기 활동을 추진했다.

이날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가운데에 "날씨 만큼이나 나라사랑하는 마음도 뜨겁다"며 재향군인회 여성회원들(30여명)은 상가를 중심으로 100여 곳에 태극기를 직접 설치해주고 무료로 태극기를 전달했으며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도 태극기를 증정하여 좋은 호평을 받았다.

또한 박영봉회장은 현재 리우 올림픽에서 우리선수들이 승전가를 부르며 태극기를 휘날릴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다며 올 해는 광복 71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인 만큼 시민들이 한 뜻으로 솔선하여 태극기 달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각 가정과 직장에서도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에 적극 협조를 부탁하며 나라사랑·김제사랑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제시재향군인회는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 및 선양운동"의 기치아래 지금껏 2,500개의 태극기를 보급하였으며 앞으로도 국가 기념일에 그 의미를 일깨우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태극기 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침으로 나라사랑을 몸소 실천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절초 관광도시 '정읍' 실현 시킬것"

김생기 시장, 산내 구절초 관련 사업 정책 간담회

김생기 시장은 9일 산내면 구절초 관련 사업 현장에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시에 따르면 산내면은 지난해 지역 전체가 구절초 황토자원진흥특구로 지정된 곳으로, 구절초 관련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산내 소재지 하천부지에 경관 작물을 활용한 경관 조성과 부지봉을 기점으로 사계절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구절초 테마공원 꽃동산 조성사업, 그리고 산내 장금 신규 마을 조성 사업, 산내면 주민들에게 건강하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제공하게 될 건강종합체육센터 건립 등이다.

이날 김 시장은 오전 8시부터 양심묵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과 이들 사업현장을 방문, 소관부서장으로부터 사업의 진행상황과 추진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하천 꽃동산 조성지에 심은 경관작물이 폭염과 가뭄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구절초축제기간 중 경관지 주변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동선을 고려해 교통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구절초 테마공원 주변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꼼꼼히 살펴 추진할 것과 산내면 건강종합체육센터 등 각종 공사 추진 시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시는 "구절초가 지역관광 상품으로서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짐은 물론 지역주민소득원이자 정읍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며 "특구 지정으로 법적 특례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구절초 향토자원 진흥특구 육성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구절초축제의 내실화와 구절초 테마공원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전국 제일의 구절초 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속적인 현장점검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검토 후 사업에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육아 품앗이 지원사업 '호응'

정읍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오은도, 이하 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육아 품앗이 지원사업(이하 육아 품앗이)'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육아 품앗이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모여 육아와 관련된 정보를 나누고, 엄마들의 재능을 바탕으로 아이 연령에 맞는 엄마표 수업을 진행하며, 육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경험을 전수하는 육아공동체 사업이다.

현재 정읍에는 4개의 육아 품앗이가 있으며 약 30여명의 엄마들이 그룹별로 활동하고 있다.

육아 품앗이 활동에 참여한 참가자는 "품앗이 활동을 통해 집에서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다양한 활동들을 아이나 엄마가 함께 경험할 수 있어서 좋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육아 품앗이가 생겨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임으로써 아이와 엄마가 함께 성장 할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족지원센터에서는 "저출산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고 건강한 자녀성장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품앗이 그룹 간 교류, 분기별 리더회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그룹이 성장할수 있도록 '육아 품앗이'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을지연습 준비사항·현안 논의

3/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정읍시는 9일 김생기 시장(정읍시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주재로 각급 기관·단체장, 향토예비군중대장, 군 지휘관, 읍·면·동장 등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3/4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갖고 2016년 을지연습 준비사항 및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을지연습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 간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실시되며, 전쟁이전의 국지도발과 국가 위기 등에 대한 관리 연습과 전쟁 발발 이후의 국가 총력전 연습을 통해 완벽한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습 첫날 을지 2종 사태가 발령되면 시는 즉시 전시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전시 직제편성과 행정기관 소산·이동 훈련을 진행한다.

이번 훈련에서는 정읍역 폭탄 테러 대비와 화재진압 훈련 그리고 내 주변 대피소 찾기와 민방공 대피 훈련,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 고층아파트 완강기 탈출 등의 생활밀착형 주민참여와 체험훈련이 중점 실시될 예정이다.

또, 첨단과학산업단지 기반시설피해 발생과 혈액 공급 차질에 따른 채혈명령 시행 등에 대한 도상연습이 신설됐다. 또한 전시 주요 현안과제로 기존 전시 예산과제 발표 그리고 토의 외에 샘골터널 폭파로 인한 종합대책 수립이 추가됐다.

시는 "특히 실제상황이 연출되는 정읍역 폭탄테러 대비 및 화재진압 훈련에서는 무장테러범의 폭음탄 사용과 진압과정에서 공포탄 발사, 화재연출 연막탄 등이 사용됨에 따라 시민들이 오인 신고할 수도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훈련 실시에 따른 대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습에 대한 평가는 도상연습과 전시현안과제 토의, 실제 훈련의 기관장 주재 여부, 전시직제편성훈련 실시 여부, 전시 개인임무카드 작성 및 과·소단위 교육 실시 여부, 근무자 연습 참여 실태 등 중앙평가와 전라북도 및 자체평가(시 감사과) 등으로 구분해 실시된다.

김생기 시장은 "하루 빨리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전쟁발발 시 시민의 생명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민·관·군·경이 혼연일체가 되어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제경찰서, 농산물 절도예방 전단지 100여장 직접 배부 홍보

김제경찰서(서장 황대규)는 9일 최근 고추 등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김제시 봉남면 평사리 부근 농가 20여가구의 고추 수확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절도범 예방 홍보 활동을 벌였다.

이번 홍보활동은 문대봉 수사과장 등 형사 6명이 고추 생산 농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농산물 도난 예방 및 보관방법, 도난 사례 등 전단지 100여장을 직접 배부하면서 홍보했다.

현장의 농가에서는 형사들이 고추밭에까지 나와 농산물 절도예방을 홍보를 하니 든든하다며 고마워했다.

김제경찰서는 앞으로 농산물 절도범죄에 대해 검거활동과 예방활동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치안고객만족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예방 및 검거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 초산동주민센터,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행위 근절 위한 캠페인

초산동주민센터(이하 주민센터)는 9일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행위 근절과 분리배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을 가졌다.

주민센터는 쓰레기 불법투기에 따른 악취 발생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도심 미관 저해를 예방하기 위해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호남고 앞 사거리에서 펼쳐진 캠페인에는 초산동 통장협의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했고, 이들은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한편 주민센터는 주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불법투기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통장회보 등을 활용한 밀착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에 총력을 쏟아오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상습 무단투기 지역과 원룸촌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미사용과 재활용품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등에 대한 집중단속과 계도활동도 병행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주민센터는 "쾌적한 초산동이 되기 위해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과 분리배출에 대한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치매안심마을 시범운영 사업설명회

부안군은 전북도 광역치매센터에서 주최하는 2016년 농촌형 치매 안심마을 시범운영 사업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10일 백산면사무소에서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사업설명회에서 치매 안심마을 선정 배경과 사업목적, 필요성, 주요내용, 주요일정 등이 설명됐다.

군은 앞으로 협약식을 시작으로 협력기관·단체들의 뇌 건강 프로그램 운영, 마을담장벽화그리기, 치매파트너 양성, 고위험군 발견 연계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주민친화적 마을 환경조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부안군 관계자는 "농촌형 치매안심마을 사업을 계기로 치매 있어도 걱정 없고 행복한 부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다문화 가족들은 '태권도 문화기행'을 전주 빙상경기장과 무주 태권 도원으로 다녀왔다.

"태권도 문화기행 즐거워요"

부안군, 다문화어울림 문화교육지원사업

부안군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통합을 돕고자 다 문화어울림 문화교육 지원사업 현장학습 '태권도 문화기행'을 9일 전주 빙상경기장과 무주 태권도원을 다녀왔다.

이날 현장학습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화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어울림 태권도교실 아동과 행복풍물단에 참여하는 결혼이민자가 함께 하며 문화를 매개로 서로 협동하고 문화교육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려고 마련됐으며 다문화가족 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현장학습은 무주 태권 도원을 찾아 우리 나라 전통무술인 태권도 박물관 등을 둘러보면서 태권도의 오랜 역사와 다양한 기술을 접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하면서 휴식과 문화감수성을 기르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전주 빙상경기장 스케이트 체험을 통해 무더위를 싹 잊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문화교육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데 집중했다.

현장학습에 참여한 김모 군은 "어울림 태권도 교실에 계속 참여하고 싶고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즐겁고 신나는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향후 다문화가족들이 좀 더 풍성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이옥수 기자